



김제시치매안심센터, 인지 강화 및 가족 교실 진행

김제시(시장 정성주)치매안심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제지사 건강 증진 특화사업 공모에 선정돼 인지강화와 가족교실을 안정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선정으로 치매 고위험군과 치매 가족을 위한 인지 강화 및 가족 교실 프로그램에 따른 감사 및 재료비 지원을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받게 됐다.

전문 강사가 파견되어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인지 기능 저하 예방을 위한 뇌활동 중심의 인지 강화 프로그램, △치매 가족 대상 정서 지원 및 소통 중심의 가족 교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지역주민은 치매안심센터(540-2936)로 문의하거나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국제로타리3670지구 해방회, 대강면에 세탁기 등기탁

남원시 대강면 관계자는 국제로타리 3670지구 해방회(대표 남원길)가 지난 10일, 찾아가는 1일 1가구 '보송보송 사랑의 빨래방' 사업을 위해 1,500만원 상당의 세탁기 및 건조기 각 2대씩 총 4대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보송보송 사랑의 빨래방' 사업은 지역내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세대 등이 대형 이불세탁이 어렵고 관련 편의시설도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마을 사회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세탁 봉사단이 봉사하는 활동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지원센터연중운영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원활한 보급과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 화재 진압에 필요한 소화기와 화재 발생을 감지해 경보를 울리는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소화기는 세대별 또는 층별로 1개 이상,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남원소방서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소방시설 구매와 설치법 안내, 위치 선정 등의 정보를 통합 제공하며 실질적인 체계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김승현 서장은 시민들에게 자율적인 설치 동참을 당부하며, "소방서도 설치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와 안내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AI가 만든 그림,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

전북대 황요한 교수팀, 국제 학술지에 논문 발표… “생성형 AI, 창작 파트너로 인식 전환 중요”

전북대학교 황요한 교수(영어영문학과)와 광주교육대학교 신동광 교수(영어교육과), 중앙대학교 이장호 교수(영어교육과)가 공동으로 생성형 AI와 관련된 논문을 국제 SSCI 저널인 『Telematics and Informatics』에 최근 발표했다.

이 저널은 사회과학 분야 JCR 기준 상위 3.4% (랭킹 6위)에 해당하는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로 평가받는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게재된 논문은 인간과 AI가 협업해 생성한 이미지의 소유권과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



황요한 교수

될 수 있는지를 실험적으로 분석한 연구다.

연구는 실제 대학 수업에서 학생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영어 단어의 어원과 관련된 이미지를 제작하는 활동을 통해 진행됐다. 이를 바탕으로 이미지 생성 전후 학생들의 인식 변화를 추적했으며, 특히 생성형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창작 파트너’로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황요한 교수는 “AI가 생성한 이미지라 하더라도 인간이 창의적으로 개입한 경우, 그것을 단순한 기계적 산출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앞으로는 인간-AI 공동 창작(co-creation)의 개념을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보호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문화재단, 지역 문화 공간 10곳과 업무협약 맺어

미술 · 공예 · 인문학 · 예술치유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11월까지 진행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키)이 '우리동네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의 선정단체와 협약식을 갖고 본격적인 생활문화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10일 재단에 따르면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작은도서관, 공방, 문화예술공간 등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총 10개 선정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취지와 목표를 공유하고, 성공적 운영을 다짐했다.

'우리동네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역 생활문화 자생력 향상을 위한 '문화공간 발굴 형태의 지원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총 40개 단체 중 10개 단체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단체는 5월부터 11월까지 미술과 공예, 예술 인문학, 예술치유 등 다양한 생활문화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며, 전주문화재단은 사업 운영비와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한 정보는 전주문화재단 누리집



(www.jcf.or.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라키 대표이사는 “공예와 강연, 전주의 대표 식재료인 콩나물을 활용한 조리 수업, 폐품을 활용한 공예 예술, 원도심 이야기를 담은 지도 제작 수업 등 선정 단체들의 아이디어가 매우 인상 깊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 속에 생활문화가 더욱 깊숙이 스며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김제 봉남면 지사협, 독거노인 생신잔치 열어

김제시 봉남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9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허영희)가 관내 6개 마을을 순회 방문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합동 생신잔치를 열었다고 밝혔다.

올해 지사협은 추진하는 7개 사업 중 주민들의 호응이 가장 좋은 '독거노인 생일잔치사업'을 첫 사업으로 추진했으며, 이 날도 신덕마을 등 6개 마을에 어르신들을 초청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경로당을 순회, 어르신들

에게 케이크, 과일, 치킨 등의 간식을 제공했다. 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참석한 한 할머니는 “이렇게 생일을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다는게 고맙다”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허영희 민간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께 기쁨을 드릴 수 있어 더없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해 꾸준히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 · 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6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전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6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정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658-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제17회 용담호 환경대학 입학식 개최

제17회 용담호 환경대학 입학식이 10일 군민자치센터 강당에서 용담호 환경대학 수강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용담호 수질개선 전안군 주민협의회(회장 김정길, 이하 용담호주민협의회)가 주최하는 용담호 환경대학은 2009년부터 올해로 17번째 운영 중으로 용담호 맑은 물을 지키며, 지속적인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 추진을 위한 주민 의식확산을 위해 매년 지역사회의 환경리더를 배출하고 있다.

올해 환경대학은 17번째로 10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5월 15일까지 6주간 환경분야 교수, 유관기관 및 단체 등 환경분야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용담호 수질자율관리와 주민실천방향 △기후변화의 이해와 대응 △친환경 비누만들기 체험 등 주민의식개선과 지역사회 환경리더 양성을 위한 다양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입학식에서 김정길 용담호주민협의회장은 “그동안 환경대학 운영을 통한 지역 환경리더 양성이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의 밑거름이 됐다”면서 “용담호 환경대학 수강생들이 열의를 가지고 교육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 노인자원봉사자 교육

노인자원봉사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와 공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나누는 의미 있는 활동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5만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 중이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만 75세에 달한다.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에서는 총 4개 자원봉사팀이 활동하고 있다. 각각 △안성그라운드자원봉사팀, △진원자원봉사팀, △설천자원봉사팀, △무풍그라운드자원봉사팀이 해당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교육은 노인자원봉사 참여자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원봉사 기본교육 및 안전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성을 고려해 '찾아가는 교육' 형식으로 마련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참여 어르신들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나서며, 지역사회 행사 지원, 탄소중립 캠페인, 환경 정비 등 다양한 공익 활동을 함께 실천하고 있다.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 이광부 지회장은 “노인자원봉사 활동은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 세대 간 소통을 촉진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전했다.

한편, 노인자원봉사 활동은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총 7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자들은 매월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